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사립대학병원협회 만나 의견 들어

-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 개최, 당면 의료현안 관련 의견 경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12시 20분에 공간모아(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이하 ‘사립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11.1.)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의견수렴 추진현황 >

- ◆ (의료계) 의료현안협의체(15차 10.26, 16차 11.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면담(10.31.), 전공의 간담회(11.7.)
- ◆ (병원계) 상급종합병원 간담회(10.27.), 병원계 간담회(11.8.)
- ◆ (사회적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차 11.1.),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면담(11.6.~7.)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사립대병원협회 윤을식 회장(고려대의료원 원장), 박승일 수석부원장(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립대병원협회는 국내 53개 사립대학병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사립대학 병원 간 교류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의료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환자에 대한 구제 강화, 적정 보상체계,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립대병원이 현재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경 (044-202-2414)

